

소통부재 사회 매우 위험

게 되고, 수천수만 직업인들이 돈만 쳐다보고 일하고 경쟁하도록 되어 있어오. 하지만 '무한향상'이 되면 자신의 일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보면 존경을 받게 되어오.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알고 일한다면 돈과 명예는 저절로 따라 오는 것이며, 이것은 정당한 돈과 명예입니다. 이 정당한 명예는 나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오. 무한경쟁은 돈과 명예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해치는 역기능이 더 많아요."

고우 스님은 '국왕 대신이라도 국민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천한 사람'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도층이 국민을 괴롭히면 더 천한 사람'이라 했다. 그리고 고우 스님은 소통이란 쌍방 소통이 되어야지 일방적인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면서 소통부재의 사회는 위험하고 소란스러운 사회라고 꼬집었다.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하고 따라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일방소통인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적극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풀려고 하는 자세가 쌍방소통인 것이오. 무지(無智)에서 지혜로 바뀌면 형상은 남녀, 빈부, 귀천 등 차별이 있지만 본질에 가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오.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하여 쌍방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툼 일도 갈등할 일도, 전쟁할 일도 없어요. 진보와 보수는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지 그것이 목표가 아님을 알아야 해요. 불교만이 종교 전쟁을 하지 않은 세계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고우 스님은 '내가 없음'을 아는 것이 정견이며 정견을 바탕으로 하여 수행하여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내가 있다는 것을 전제 하야 무언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행을 거꾸로 하는 것이라한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추구한 만큼 행복하지 못한 연유는 어디 있는 것인지 여쭙었다.

"사람들은 눈으로, 귀로, 혀로, 몸으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구박하며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쁘다 좋다' 고 하는 것도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일은 다가온다기보다는 자신이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가 있어 비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좋고 나쁜 일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가 있다는 집착 속에서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좋은 일에 꼬달리고, 나쁜 경계가 나타나면 나쁜 경계에 꼬달려 속상해 합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으면 좋아하여 취하려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없애고 무지한 사람은 경계를 없애려 합니다."

빈부(貧富), 귀천(貴賤), 고저(高低), 상하(上下) 등 이런 경계를 없애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



는데, 고우 스님은 도리어 "무지한 사람은 경계를 없앤다"고 하니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천수만 가지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수많은 경계를 다 없애려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지만 나를 없앤다면 경계를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아(無我)가 된다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각각 다른 수많은 경계들은 지혜로 전환되는 것이오. 선종에서는 중생과 부처로 나누지 않고 일체 모든 것을 부처로 봅니다. 이분법으로 사고한다면 부처가 되는 길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무아가 된다면 일체 모든 것이 부처 하나로만 보인다고 했다. 무아가 되면 지금 사고하는 것이 지혜로 바뀌게 되니 매사(每事)가 좋은 일로 다가오고, 매일(毎日)이 좋은 날로 되는 것이라한다. 이렇게 되면 절로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것이다. 그래서 고우스님은 무아(無我)를 신념화하라고 일러주시는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고우 스님의 한유로움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마당에 내려갔다. 몸피가 큰 개들이 짖지도 않고 긴 꼬리를 시계추처럼 흔들고 있다. 반가워하는 개의 몸짓은 충분히 알겠지만 무서워서 걸음을 뒀 수 없었다. 순한 개라고 하지만, 마음속의 견고한 공포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공포심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기에 누구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개들은 짖을 환대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렇지 못하니 개와 짖은 소통부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낮선 사람을 보고 짖는 것이 개의 본성이건만, 이곳 금봉암의 개들은 낯선 사람을 봐도 짖지 않아요. 무심도인의 그늘에서 살면 날카로운 자는 둔갑어지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워지고, 공격적인 자는 자애로워 지는 것임을 실감했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48. 범산 김법민 선생

범산 김법민(梵山 金法隣, 1899~1964) 스님의 필명은 철야(鐵岬)이다. 경북 영천 출신으로 14세에 동래 범어사에 출가해 17세에 비구계를 받았으며, 3·1운동 당시에는 불교계 영남대표로 활약해 몇 번이나 감옥살이를 하였다. 1921년 프랑스로 유학가 1926년 파리대학 철학과를 나오고, 1929년 백성옥, 김상호 스님과 함께 조선불교 선교양종 승려대회를 열어 중원 종법을 제정하고 불교혁신운동에 앞장섰다. 만해 한운은 스님의 뜻을 받들어 만당(萬黨)을 조직하고 쫓겨 다니다가 1930년 일본 고자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조선청년동맹을 조직해 독립운동을 강행하고, 또 국내에 나와서는 다습사, 해인사, 범어사 등지에서 강의를 하면서 10여년간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다가 두 번씩이나

주지 정원 스님과 일본 대학 동기가 돼서 을미아리우거에서 주무시고 나면 언제나 동국대 총장님을 뵈고 갔다. 만나면, "공부 잘 하고 있는가. 그때(선거 때)는 내가 미안했어. 원당 선생 병풍 하나 팔아서 선거운동을 했었거든. 세계적인 작가가 되려면 어학에 능통해야 된다. 열심히 하게." 1964년, 66세의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와 불교를 잊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어학공부를 소홀히 해 지금도 어학이 시원치 않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불교와 국가는 들어 뭘 수 없다. 불교가 망하면 국가도 망하



별로 되어 일본에 있을 때 일기를 꺼내 보여주셨는데, 김법민 선생과는 한방에 살면서 아주 절친한 처지에 있었다. 김익석 박사님도 같은 학교에 후배로 유학했기 때문에 그들의 명단이 소장하게 기록되어 애경 때 같은면 철야의 증거물이 되기 십상이었다.

정원 스님은 범산 총장께서 호필을 정해주어도 가지지 않고 미아리 고등공민학교 기숙사에서 아드님과 함께 지내며 후배들을 위해 격려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우리 말을 지키기로 해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키게 됐고, 우리 글을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하면 불교도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에 곳곳에서 아학을 하고 했음을 들

3·1운동 불교계 영남대표로 활약... 동대총장 등 역할

육고를 지냈다.

1945년 해방 후로는 불교중앙총무원장으로 불교혁신운동에 앞장섰으며,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미군정청장관 하지 중장을 만나 일본 사찰을 불교계에 인수해 줄 것을 간청했다. 그리하여 1947년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1952년 문교부 장관이 됐으며, 195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장이 됐다. 제3대 민의원에 당선됐다. 1959년 원자력 원장을 역임하고, 1962년 동국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동대총장으로 취임했다.

3·15선거 후 양원제가 실시되자, 경상남도 대표로 출마해 고전 중에 있을 때 고성 보광사 주지 포공 스님의 안내로 찬조연설을 부탁해 보름동안 경남 일대고성 사천 삼천포 통영을 돌아다니며 함께 고생한 일이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 동기 김유길 선생의 아버지(당시 천은사

고, 불교가 흥하면 국가도 흥한다. 불교의 목적은 중생구제와 불국토 건설에 있는데, 백성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라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범산 스님께서 동국대 총장시 학생의 신분으로 있었으므로 늘 아드님을 통해서 소식을 묻고, 총장을 그만두고 떠나실 때에는 나에게 <일본사기> 상하 양권을 주어 지금도 가지고 있다. 평범한 키에 통통한 몸매를 가지고 나비 넥타이를 주로 매시기 때문에 얼굴이 더욱 둥글게 보였다. 정원 스님을 만나면 얼싸잡고 일본 유학시절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정원 스님은 이 인연으로 지리산 서체에까지 나를 초청해 여름 방학동안 천은사에 내려가 스님의 서체를 구경한 일이 있다.

정원 스님은 출가 후 일생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는데, 깨알같이 쓴 일기가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많았다. 년도

고 봉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먹고 살기가 편해져서 그런지, 빼앗긴 땅을 찾았어 그런지, 젊은 학생들의 폐기 속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나라 말 바르게 읽는 사람들이 적어지니 불교 또한 쇠미해질 수밖에 없지. 저네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 다시 나눠 주고 있으니 고마워 다른 곳은 가고 싶지 않아. 방학 때가 되면 반드시 나라와 지리산 바람도 쏘이고 옛 절터도 살펴보고."

이것이 정원 스님의 마지막 법문이다. 연초록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약간 팔림이면 그 속에서 정원 스님은 이 인연으로 지리산 서체에까지 나를 초청해 여름 방학동안 천은사에 내려가 스님의 서체를 구경한 일이 있다. 정원 스님은 출가 후 일생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는데, 깨알같이 쓴 일기가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많았다. 년도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학! 바꿔드립니다

빛살문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홍충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빛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등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십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禪)선종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054)261-7777 / 팩스: (054)261-6119

거제도 총명사 이미지추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3권 전 30권중 제 13권 출간! 전통보다 더 많은 공안을 곁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펴고 숨어있던 곁집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원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원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빈아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